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아들이 걷지 못한다 (왕호응 씀)

이것은 어떤 남자가 6세가 된 아들이 아직도 걷지를 못하여 예측(豫測)한 것으로,
계묘년(癸卯年) 계해월(癸亥月) 신미일(辛未日) 기해시(己亥時) (순공(旬空): 술해(戌亥))에,
수뢰둔(水雷屯)이 풍뢰익(風雷益)으로 변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癸亥月 辛未日 己亥時

八卦

水雷屯(坎水宮) 之 風雷益(巽木宮)

應 孫辛卯 <small>將 閏花</small>	蛇兄戊子 <small>閏花</small>		伏兄戊子 <small>閏花</small>
財辛巳 <small>馬</small>	勾官戊戌 <small>喜天 空</small>		應 伏官戊戌 <small>喜天 空</small>
官辛未 <small>蓋</small>	朱父戊申 <small>帳花劫</small>		伏父戊申 <small>帳花劫</small>
世 官庚辰 <small>花鞍</small>	青官庚辰 <small>花鞍</small>		伏財戊午 <small>鬼乙害</small>
孫庚寅 <small>乙亡</small>	玄孫庚寅 <small>乙亡</small>		世 伏官戊辰 <small>花鞍</small>
兄庚子 <small>閏花</small>	白兄庚子 <small>閏花</small>		伏孫戊寅 <small>乙亡</small>

卦身: 官未

世身: 三爻

空亡: 戌亥

자손(子孫)을 용신(用神)으로 삼고, 괘의 조합과 변화를 살펴 본다. 자손 인목(寅木)이 이효(二爻)에 있는데, 이효는 다리가 되며 일(日)에 입묘(入墓)하니 걸어 다니지 못하는 상이다. 원신(元神) 자수(子水)가 육효(六爻)에서 발동(發動)하여 초효(初爻)로 비도(飛到)하는데, 초효 자수는 백호(白虎)에 임했다. 백호는 도로가 되고 초효는 발이 되며, 육효는 담장이 되는데, 묘목(卯木)으로 화(化)하니 손이 되어, 담장을 붙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음을 주한다. (응험)

육효는 휴식하는 효(爻)이자 퇴위의 자리인데, 등사(騰蛇)에 임하여 발동하니, 마음이 번뇌

스럽고 짜증을 내며 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이 맑지 못함을 주한다. (응험)
 원신이 육효에서 사지(死地)로 화하니, 쉽게 피로해지고 걸핏하면 몸에 기운이 없어진다. (응험)
 처재(妻財)가 복장(伏藏)되어 있고 청룡(靑龍)에 임하니 음식을 주하는데, 밥을 잘 먹지 않는다. (응험)
 자손 인목이 이효에서 입묘되었는데, 목(木)은 나무 재질의 물건이 되고 현무(玄武)에 임하니, 현무는 곰팡이가 핀 것이며 입묘는 곧 한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뜻한다. 미토(未土)가 입괘(入卦)하여 술토(戌土)와 진토(辰土)로 변하는데, 진토는 청룡에 치(值)하여 음식을 주하고 술토는 처재의 묘고(墓庫)가 되니, 종합하면 청룡은 주방을 대표하니 주방에 틀림없이 곰팡이가 핀 젓가락이 단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응험, 세 들어 사는 집이었는데 청소하여 12개를 찾아냈으며, 깨끗이 씻은 후 집안의 동북쪽에 두도록 하였다.)
 일진(日辰) 미토는 지의(地醫)가 되어 자손 묘고(墓庫)로, 자손을 방부(幫扶)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니 병원에서 병을 명확히 알아내지 못하고 치료 효과도 그저 그렇다. (양방과 한방을 모두 보았으나 원인을 알지 못했다.)
 세효(世爻)는 본인을 대표하는데, 원신 자수가 육효에서 일에 극(剋)을 받으니, 수(水)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는 지혜가 되고 육효는 머리가 되어 극을 받은 즉 당신 본인의 기억력이 감퇴했음을 주한다. (응험, 물건을 잘 기억하지 못함.)

세효가 이효에서 현무에 임하여 일에 입묘하니, 현무는 한기(寒氣)가 되고 이효는 다리가 되며 초효 역시 원신인데 극되니 다리가 시리고 차가움을 주한다. (응험, 추위를 탐.)

화해(化解): 쌀 9알을 검은 천으로 감싸고 걸면에 밝을 명(明) 자를 하나 쓴 뒤 남서쪽에 둔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피드백이 없었다.

儿子不会走路 (王虎应)

这是某男预测儿子6岁了还不会走路，于癸卯年癸亥月辛未日己亥时(旬空：戌亥)，得水雷屯之风雷益。

騰蛇	兄弟子水×	子孙卯木
勾陈	官鬼戌土'应	
朱雀	父母申金"	
青龙	妻财午火	官鬼辰土"
玄武	子孙寅木"世	
白虎	兄弟子水'	



以子孙为用神，看卦的组合变化。子孙寅木在二爻，二爻为腿，入墓在日，不能走路之象。

元神子水在六爻发动飞到初爻，初爻子水临白虎。白虎为道路，初爻为脚，六爻为墙为，化卯木为手，主扶墙可以走几步。(验)

六爻为休息的爻、退位，临騰蛇发动，主心情烦恼，闹情绪，状态不好，精神不佳。(验)

元神在六爻化死地，容易疲劳，动不动身上没有劲。(验)

妻财伏藏，值青龙主饮食，不好好吃饭。(验)

子孙寅木在二爻入墓，木为木质的东西，临玄武，玄武为发霉的，入墓就在看不见的地方，未土入卦变成戌土辰土，辰土值青龙主饮食，戌土是妻财的墓库，综合青龙代表厨房，厨房一定有发霉的筷子，在一眼看不到的地方。(验，租的房子，清理出来12根，让洗干净后放到家里的东北去。)

日辰未土为地医，墓库子孙，对子孙没有帮扶的作用，医院搞不清楚病，治疗效果一般。(中西医都看了，不清楚原因。)

世爻代表本人，元神子水在六爻被日克，水为智慧，六爻为头，被克则主你本人记忆力减退。(验，记不住东西。)

世爻在二爻临玄武入墓在日，玄武为寒，二爻为腿，初爻也是元神被克，主腿上寒凉。(验，怕冷。)

化解：大米9颗，黑布包起来，外侧写一个明字，放西南。后来如何，没有反馈。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10장 저잣거리에서 도를 보고,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차고 기움을 깨달다

낙양(洛陽)의 안락와(安樂窩)에 편안히 자리를 잡은 후, 소옹(邵雍)은 방랑을 끝내고 머무를 곳을 얻어 도를 향한 마음이 한결 안정을 찾았다. 수년 동안 백원(百源)에서 문을 닫고 정진하며 그는 천지의 이치를 조용히 탐구하고 선천의 수리(數理)를 추론했다. 그리하여 외롭고 고요한 산속에서 음양(陰陽)의 조화와 사계절이 순환하는 오묘한 이치를 남김없이 깨달았다. 그의 학문은 고결하고 깊었으며 경지는 맑고 고요했으나, 결국에는 천도(天道)에 치우쳐 이론을 세웠을 뿐 정작 인간 세상의 삶 속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지는 못했다. 대도는 본래 하늘을 통하고 땅을 꿰뚫는 법인데, 만약 산림에 갇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서재에서 추론하는 데만 머문다면, 공중에 봉 뜨는 폐단에 빠져 인간 세상의 단단한 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소옹은 더는 문을 닫고 홀로 지내며 고요히 앉아 현묘한 이치만 찾아 헤매지 않았다. 대신 사방 한 칸의 누추한 방을 나와 낙양 성안의 좁은 골목과 한적한 길, 사람 냄새 가득한 저잣거리로 걸어 들어갔으며, 시골 마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간 세상의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대도의 마지막 퍼즐을 채워 넣기 위함이었다.

낙양은 옛 황제들이 도읍했던 터이자 중주(中州)의 중심 도시였기에, 저잣거리는 변화하고 사람과 연기가 뽀뽀이 들어차 세상의 온갖 모습을 다 품고 있었다. 큰 길은 사방으로 뻗어 있고 가게들이 숲처럼 늘어섰으며, 장사꾼들이 꼬리를 물고 오가고 수레와 말들은 밤낮없이 분주히 움직였다. 저잣거리 안에는 이익을 쫓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장사가 잘되어 하루에 천 금을 벌어들이는 풍요로움이 있는가 하면, 매매가 쓸쓸하여 생계가 막막한 곤궁함도 있었다. 이웃끼리 서로 의지하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 푼 한 리까지 따지며 서로 다투는 야박함도 있었다. 골목 하나와 거리 하나, 백성 한 명과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인간 세상의 진실한 모습이었으며, 세상일이 차고 기우는 영고성쇠(盈虧)의 이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소옹은 자주 벼웃을 입고 한가로이 거닐며, 저잣거리와 골목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뽐내지 않았고, 신분을 내세워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때를 지어 구경하거나 왈가왈부 논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묵묵히 살폈다. 아침 시장의 번잡함 속에서 모든 사람이 먹고사는 생계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재물을 얻으면 기뻐하고 이익을 잃으면 근심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분노가 모두 얻고 잃으며 차고 기우는 이치 사이에 매여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장사꾼들의 거래를 살피며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과 장사의 흥망성쇠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았다. 오늘의 가득 참이 내일의 쇠퇴가 아닐 수 없고, 지금의 손해가 훗날의 번창이 아닐 수 없으니, 이는 참으로 음양이 소멸하고 성장하며 가고 돌아오는 순환의 이치와 딱 맞아떨어졌다. 이웃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보며 사람의 정에는 따뜻함과 서늘함이 있고 교제에는 두터움과 얽음이 있으며, 재앙과 복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얻고 잃음은 미세한 틈새에 숨어 있음을 관찰했다. 이야말로 재앙과 복이 서로 의지하고 이로움과 해로움이 함께 생겨난다는 대도의 법칙을 가장 참되게 증명하는 것이었다.

지난날 소옹이 도를 깨달을 때는 대개 위로 천문(天文)을 우러러보고 아래로 지리(地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理)를 살폈다. 산과 강의 흐름과 사계절의 바뀔 속에서 주역(周易)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그가 본 것은 모두 천지의 정해진 운수와 자연의 변함없는 도리였다. 그것은 맑고 고결하며 원대했으나 한편으로는 세상과 다소 떨어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 냄새 가득한 인간 세상에 몸을 담고 나서야 비로소 철저히 깨달았다. 천지의 대도는 결코 높고 멀며 현묘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참된 자연의 오묘한 비밀은 반은 산천의 온갖 모습에 있고, 반은 저잣거리 백성들의 민생에 있었다. 천지와 사계절이 성하고 쇠함을 보여주듯 인간 세상의 온갖 모습은 차고 기움을 드러내니, 풀과 나 무가 시들고 푸르러지는 것도 천도요 인간 세상의 얻고 잃음 역시 천도였다. 산과 강이 만고 주기로 변함없이 순환하는 법칙은, 아침저녁으로 흘러가는 인간 세상의 일상 속에 고스란히 복제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 학문으로 닦은 선천의 수리를 인간 세상의 변천에 하나하나 대조해 가며, 뜻이 깊고 현묘한 주역의 이치를 백성들의 생계와 저잣거리의 흥망, 사람 정성의 얻고 잃음 사이에 사뭇히 내려놓았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음양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요, 장사가 잘되고 쓸쓸한 것은 성하고 쇠함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사람 마음이 취하고 버리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기틀이요, 세상일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차고 기우는 법칙이었다. 세상에 영원히 가득 차서 무너지지 않는 일은 없으며, 영원히 기울어 있어서 변성하지 못하는 판국도 없다. 성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꺾이고 기움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채워지며, 복은 재앙 속에 감추어져 있고 재앙은 복 사이에 숨어 있으니, 만물이 순환하여 되돌아오는 것에는 예외가 없었다. 과거 책 속의 딱딱했던 뜻과 산속에서 고요히 깨달았던 비밀이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증명되자, 비로소 살아 움직이듯 생생하고 참되게 가슴으로 만질 수 있는 지혜가 되었다.

하루하루 세상 구경을 이어가면서 소용은 차츰 천도와 수리, 인사(人事)라는 세 가지 장벽을 허물고 이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완전히 꿰뚫었다. 천도는 만물의 본원으로서 운행하는 궤도를 정하고, 수리는 추론하는 법칙으로서 변화의 법도를 정하며, 인사는 현실에 부딪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흥망성쇠의 흔적을 정한다. 천도는 소리가 없으니 인간 세상을 빌려 모습을 드러내고, 수리는 형태가 없으니 얻고 잃음을 빌려 분명하게 나타난다. 천지에 사계절의 순환이 있고 인간 세상에 회복과 차고 기움이 있는 까닭은, 본질적으로 모두 음양이 소멸하고 성장하며 균형을 찾아 되돌아오는 하나의 대도일 뿐이며, 결코 둘로 쪼개져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十章 市井观道，烟火人间悟盈亏

自安居洛阳安乐窝后，邵雍尘埃落定，道心安稳。数年百源闭关，他静参天地、推演数理，于空山寂寂中悟尽阴阳造化、四时轮转之妙，学问高绝、意境清虚，却终究多从天道立论，少向人间落地。大道本通天彻地，若只困于山林静坐、书斋推演，便会落入悬空之弊，失却烟火根基。故而邵雍不再闭门独居、枯坐参玄，转而走出方寸陋室，走入洛阳城的街巷阡陌、市井烟火，走入乡野村落、百姓日常，于人间百态中补全大道的最后一块拼图。

洛阳身为帝都旧壤、中州都会，市井繁华、人烟稠密，最是容纳世间万象。长街纵横、商铺林立，商贾往来络绎不绝，车马穿行昼夜不息。市井之内，有人逐利奔波、朝夕劳碌，有人安居闲适、岁月从容；有生意兴隆、日进斗金的丰盈，亦有买卖萧条、生计艰难的窘迫；有邻里相扶、温情相助的善意，亦有分毫计较、彼此相争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곡률금전(斛律金傳)

곡률금(斛律金)은 자가 아륙둔(阿六敦)이며, 병주 태원 사람으로 북위(北魏)와 북제(北齊) 두 왕조의 명장이자 개국공신이다. 곡률씨(斛律氏)는 대대로 북쪽 지방에 살며 태원에 뿌리를 내렸는데, 여러 세대에 걸친 장수 가문으로 대대로 사납고 용맹했다. 곡률금은 군인 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전투 진형에 능숙했으며, 성품이 소박하고 돈후하며 침착하고 굳세어 말수가 적었다. 화려함을 숭상하지 않고 오직 충성과 용맹으로 몸을 세우고 변방을 지켜 나라에 보답하는 것을 뜻으로 삼았다. 북조 시절에는 북방의 유목 부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변방의 전황이 해마다 이어졌고, 중원과 북방 땅이 자주 약탈당하여 백성들이 떠돌고 사직이 편안하지 못했다. 곡률금은 변방에서 자라나 변방의 황폐함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고, 젊은 나이에 군대에 투입되어 사방을 정벌하며 장수와 스승이 지녀야 할 재능을 연마했다.

북위 말년에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권신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천하가 분열되고 동서가 대치하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곡률금은 사납고 용맹하게 싸움을 잘했고 군대를 극히 간결하게 다스렸으며, 군사들을 안타깝게 여겨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 하고 얻은 상을 모조리 삼군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문에 휘하의 장수와 병사들이 저마다 목숨을 바쳐 거칠 것이 없었다. 그의 용병은 침착하고 노련했으며, 천시와 지세를 잘 살피고 적을 마주하여 임기응변하니 기묘함과 바름이 서로 어우러졌다. 크고 작은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자주 강력한 적을 깨뜨려 북쪽 변방에 위엄을 떨쳤다. 고환(高歡)이 군사를 일으켜 하북을 경영하며 천하의 맹장들을 맞아들일 때, 곡률금은 시세를 헤아려 무리를 이끌고 귀부하여 고환 휘하의 핵심 장수가 되었으며, 북제 기업의 창립에 깊이 참여하여 북제 개국의 으뜸가는 공신이 되었다.

그는 일생 동안 북위, 동위(東魏), 북제의 세 조정을 거쳐 섬기며 수십 년 동안 변방을 지켰고, 북쪽으로는 돌궐(突厥)과 유연(柔然)을 막아내고 서쪽으로는 적들의 노략질에 대항하여 북방의 영역을 공고히 하고 중원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는 병풍이 되었다. 또한 품성이 충성스럽고 순수하여 비록 군공이 세상을 덮고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으나, 결코 공을 믿고 오만하지 않았고 사사로운 당파를 결성하지 않았으며 조정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무장의 본분을 굳게 지키며 청백하게 몸을 세웠다. 그가 지은 《칙령가(敕勒歌)》는 쓸쓸하면서도 웅혼하고 소박하며 자연스러워, 북국 산하의 광활함과 변방의 아득함을 남김없이 써내어 천 년 동안 전해지니 북조 악부의 제일가는 명편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살며 무거운 군사를 손에 쥐고도 충의를 지켰고, 전쟁의 공을 세우고도 겸손한 덕을 보존했으니, 무공의 지략과 문학의 운치를 겸비하여 태원의 굳세고 후덕한 산하의 기운을 이어받아 북조 시대의 명장으로서 백 세에 이름을 떨쳤다.

斛律金传

斛律金，字阿六敦，并州太原人，北魏、北齐两代名将，开国元勋也。斛律氏世居北地，扎根太原，累世将门，世代骁勇。金出身军旅世家，自幼熟习弓马，娴于战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阵，性情质朴敦厚，沉毅寡言，不尚浮华，唯以忠勇立身、戍边报国为志。北朝之时，北方游牧部族此起彼伏，边境战火连年，中原北方之地屡遭劫掠，百姓流离，社稷不宁。斛律金生长边塞，目睹边疆残破、生民疾苦，年少投身行伍，征战四方，磨砺一身将帅之才。

北魏末年，朝纲崩坏，权臣擅政，天下分裂，东西对峙，战乱不休。斛律金骁勇善战，治军极简，体恤士卒，与部下同甘共苦，所得赏赐尽数散于三军，是以麾下将士人人效死，所向披靡。其用兵沉稳老练，善察天时地势，临敌应变，奇正相生，大小数十战，屡破强敌，威震北疆。高欢起兵经略河北，招揽天下猛将，金审度时势，率众归附，成为高欢麾下核心战将，深度参与北齐基业创立，为北齐开国首功之臣。

其一生历仕北魏、东魏、北齐三朝，镇守边塞数十载，北御突厥、柔然，西抗敌寇，稳固北方疆域，屏障中原万民。且品性忠纯，虽军功盖世、位极人臣，却从不恃功自傲，不结私党，不干预朝政，恪守武将本分，清白立身。其所作《敕勒歌》，苍凉雄浑，质朴天然，写尽北国山河辽阔、边塞苍茫，流传千载，为北朝乐府第一名篇。身居乱世，手握重兵而守忠义，立战功而存谦德，兼具武略与文韵，承太原刚厚山河之气，为北朝一代名将，流芳百世。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신의천진(神醫天真)》

량중자(良中子)는 곧 안도 쇼에키(安藤昌益)로, 일본 에도 중기의 지명도 있는 민간 의사와 사상가이다. 평생 의술과 본초(本草)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동시에 사방을 유람하며 독창적인 학술 이념을 형성했다. 《신의천진》은 그의 핵심 의학 저작으로, 책 전체가 천진원기(天真元氣)를 근본적인 입론으로 삼아 인체와 천지만물이 모두 일원원기(一元元氣)로 화생한다고 보았으며, 음양(陰陽)이 서로 소통하고 순환하며 상생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전통적인 완고한 음양오행(五行) 인식을 타파했다.

해당 서책은 특색 있는 진료 체계를 형성했는데, 얼굴 부위의 망진(望診)을 중시하여 얼굴 부위와 오관을 장부(臟腑)에 대응시켜 병소와 병세를 판단했다. 시치(施治) 이념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주장하여, 온몸의 원기를 조화롭게 하고 신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독한 약으로 강하게 공격하는 것을 추종하지 않았다.

이 저작은 의학 이론과 자연 철학을 깊이 결합하여, 전통 의학 이론의 정수를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색을 융합했으니, 일본 근세 민간 의학 중에서 풍격이 선명하고 사상이 심오한 고전이며, 당시 동아시아 민간 의술과 사상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참고를 제공한다. 연재의 세 번째.

良中子即安藤昌益，是日本江戸中期知名民间医者与思想家，一生钻研医术、本草之学，同时游历四方，形成了独树一帜的学术理念。《神医天真》是其核心医学著作，全书以“天真元气”

为根本立论，认为人体与天地万物皆由一元元气化生，秉持阴阳互性、循环相生的整体观念，打破传统僵化的阴阳五行认知。

该书形成了特色诊疗体系，重视面部望诊，以面部部位、五官对应脏腑来判断病灶与病情。在施治理念上，主张顺应自然规律，以调和周身元气、恢复机体平衡为核心，不推崇猛药强攻。

这部作品将医学理论与自然哲学深度结合，既吸纳传统医理精华，又融入自身独到思考，是日本近世民间医学中风格鲜明、思想深刻的典籍，也为研究当时东亚民间医术与思想文化提供了珍贵参考。连载之三。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20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